

기고

독/자/기/고

봄철 산불예방,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김 미 순 진도부군수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산과 들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로, 작은 부주의

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기에 대비해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과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전국적으로 산불 예방과 대응 태세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산불조심기간에 군청과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하며 산불 예방과 조동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림재난대응단을 통해 산불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드론을 활용해 산불을 조

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산림재난대응단을 운영해 논두렁과 밭두렁 소각, 영농 부산물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강력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산불 예방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군민 여러분께서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두렁과 밭두렁 소각, 영농 부산물 소각을 자제해 주시고, 산림 내 취사나 흡연, 화기 사용을 절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에 갈 때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진도군 산림휴양과, 읍면 사무소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산불은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하지만, 훼손된 산림이 회복되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소중한 산림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미래 자산입니다.

진도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예방 중심의 산불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산불 없는 안전한 진도'를 만드는 데 함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봄철 산불,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답이다

불씨는 잠깐, 피해는 평생이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고, 산과 들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봄이 다가오고 있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등산과 농번기 준비 등 야외 활동이 점차 늘어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와 동시에 산불 위험 또한 가장 높아지는 때이기도 하다.

특히 2월부터 4월까지의 낮은 습도와 강한 바람이 반복되고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줄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제 산불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상시적 재난이 되었다.

산불은 단순히 나무 몇 그루가 타는 사고가 아니다. 한 번 발생하면 수십 년간 가꾸어온 산림 생태계를 순식간에 파괴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지역 공동체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

우리 함평군 역시 2023년 4월, 신광·대동면 일원에서 군 역사상 가장 큰 대형 산불을 겪으며 641ha가 넘는 소중한 산림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 산림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만, 다시 울창한 숲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산불피해지 복구와 산림 회복을 위해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립 사업과 함께 지역 안전을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행히도 이러한 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 군민과 공직자, 산불진화대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한 결과, 지금까지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도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 없이 안정적인 산불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산불 발생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산불 제로화를 이어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 사항은 분명하다.

첫째,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논·밭두렁이나 주택 주변에서의 쓰레기·영농부산물 소각은 가장 빈번한 산불 원인 중 하나다. 특히 봄철에는 마른 풀과 낙엽이 많아 불길의 순식간에 확산된다.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원상복구 책임까지 부담해야 한다.

둘째,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는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라이터, 버너, 담배 등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에 오르기 전 소지품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길 바란다.

현행 법령에 따라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흡연이나 취사는 엄격히 금지돼 있고 인화물질 소지 자제도 제한된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산불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각심과 실천이 모일 때 비로소 산불 없는 안전한 봄을 맞이할 수 있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 인력을 확대하고, 순찰과 예방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

소중한 산림은 우리 세대만의 자산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공동의 유산이다. 작은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두가 산불 예방의 주체가 되어 주길 당부드린다.

불조심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다.

지금 이 순간의 관심과 실천이 우리의 숲을 지키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함평군 부군수 강하춘

독자투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더 이상 두고 볼 순 없다

최근 언론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가혹행위 언론보도 후 산업구조상 취약계층인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이번달 16일부터 6. 14일까지 100일간에 걸쳐 산업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관련하여 폭행, 상해, 체포, 감금, 모욕, 강요,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일체 행위에 대한 탐문, 첩보수집 등 가시적 형사활동을 통한 선제적·예방적 특별 형사활동을 강화하여 위법 확인 시 수사등을 통해 강력히 단속하여 처벌할 예정

이다. 우선 각 경찰서에 강력 1개팀을 전담팀으로 지정, 첩보수집 및 피해상담을 전담하고 관련 사건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간 계절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합동 전수조사를 각 지자체등과 연계해 위법 사례를 공유 확인하고, 또한 임금체불 등 위법사례 확인 및 조사 시 고용노동부·이주노동자인권 네트워크등 적극 협업으로 조사대상은 핫라인 구축을 통해 신속히 수사하여 통보할 방침이다

그리고 경찰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범

죄피해 신고 활성화와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외국인 이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불법체류 등 강제 추방등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피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책제도를 현장대면 홍보 활동과 외국인 고용업체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 활용 등 온·오프라인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상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인권침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 추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인권침해 신고, 범죄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인권침해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형법상의 살인,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유기와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직업안정법 위반죄등과 관련된 각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불법체류 외국인인 별도 출국국관에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되지 않는 제도이다. 이 같은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강제퇴거에 대한 우려 없이 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국번 없이 112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

완도경찰서 읍내지구대 김광중 경감

오늘의 운세 2026년 3월 24일 화요일 (음력 2월 3일)

<p>48년생 착한미운수로 주변을 돌아보자. 68년생 능력껏 소싯시 시험을 마쳐보자. 72년생 실수는 강추우고 허물을 덮어보자. 84년생 미루고 있던 계획 소망을 걸어보자. 96년생 자존심 세우려다 본전도 못 건진다.</p>	<p>49년생 우렁각시 도움 베풀어 받아보자. 61년생 번거로운 부티도 흔쾌히 받아보자. 73년생 요란한 시작 기대를 높여보자. 85년생 안락한 마무리 박수는 덤으로 온다. 97년생 특별한 새삼 경황 허용 성숙해진다.</p>	<p>50년생 오메발망가 다린 소식을 들어보자. 62년생 혼자하는 지랑 초라하고 쓸쓸하다. 74년생 빛은 존재 거듭남을 가져보자. 95년생 조금은 불편한 차신을 가져보자. 98년생 고민은 사다. 온몸으로 부딪혀라.</p>
<p>51년생 동병상련 같은 차지를 위로하자. 63년생 미안하다 고맙다 진심을 나눠보자. 75년생 부지런한 수고값으로 매겨진다. 87년생 살기운에 정표현 불꽃이 피어진다. 99년생 예게하는 말 천냥 빚을 갚아본다.</p>	<p>52년생 여럿이 함께 동지애로 문채보자. 64년생 친구 없는 외로움 한숨이 깊어진다. 76년생 늦어진 만큼 부지런을 더해보자. 88년생 갈했다 칭찬에 박수는 덤으로 온다. 100년생 욕심도 정도껏 미움으로 돌아온다.</p>	<p>53년생 개구쟁이 시절 추억을 더듬어보자. 65년생 미리 확인으로 조심을 더해보자. 77년생 사랑하고 싶어진 밤을 가져보자. 89년생 기분도 지갑도 넉넉하게 채워진다. 101년생 일취월장승세 그늘에서 버티는다.</p>
<p>54년생 쟁기고 보살피고 가장 노릇 해보자. 66년생 부질없는 미련 흔적조차 지워내자. 78년생 스쳐 가는 인연 보석임을 알아보자. 90년생 일회 일비 없는 꾸준함이 우선이다. 102년생 기성했던 노력의 결수로 매겨진다.</p>	<p>55년생 그럴 수 있다 공감대를 가져보자. 67년생 만족스러운 거래 도장이 찍혀진다. 79년생 느리고 천천히 시간 속에 담이 있다. 91년생 알아야 명징이다. 흥나부도 내보자. 103년생 근면과 성실 높은 경수를 받아보자.</p>	<p>56년생 물과 기름이라도 머리를 맞대보자. 68년생 갈모숨은 합격 속을 들여보자. 80년생 대한 결심은 실천에 옮겨보자. 92년생 구판도 타박도 쿡노래로 돌아보자. 104년생 열심히 했던 준비 고리만 남겨진다.</p>
<p>57년생 화려한 전성기 비단옷이 걸려진다. 69년생 이름다운 강동 눈물까지 흘려낸다. 81년생 희망이라는 작은 씨를 뿌려보자. 93년생 말수는 작게 들는 귀를 가져보자. 105년생 간자기 유명세 갖는 곳이 많아진다.</p>	<p>58년생 은근히 했던 기대 상으로 변해진다. 70년생 서서 했던 고생 부딪힘이 더해진다. 82년생 공이 팔이 리 해도 의리를 지켜보자. 94년생 깨달음을 주는 충고들 들어보자. 106년생 행복한 순간을 그림으로 그려보자.</p>	<p>59년생 이해의 폭은 바다처럼 넓어진다. 71년생 복덩이 시구 버선발로 맞이하자. 83년생 격식 따위 없는 편안함을 가져보자. 95년생 꿈으로 했던 목표 완성이 보여진다. 107년생 누그러지는 이름 특별하게 불려진다.</p>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 이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권광춘	편집국장 박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시 00065	광주광역시 광안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주)재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4700원

# Goheung Spaceship Terminal

## 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 2026.5.2. (토) - 5.5. (화)

####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 고흥군축제위원회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